해남 공룡박물관 '매직빅맨 공연'. /뉴시스

해남군, 24~27일 군 운영 관광지 무료 개방

공룡박물관·땅끝전망대 등 5개소

전남 해남군은 2020 해남방문의 해를 맞아 설 연휴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전체를 무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남공룡박물관을 비롯해 우수영관광지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두륜미로파크, 땅끝전망대, 고산윤선도유적지 등 5개소이다.

군 관광지는 평시에는 어른 기준 1000~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해남공룡박물관,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두륜미로파크, 땅끝전망대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온 관광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고산윤선도 유적지에서는 굴렁쇠 굴리기와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마당이 마련되며, 땅끝순례문학관 상설체험도 정상 운영된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동네방네

"어린 시절 썰매 추억…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인천 계양구 얼음썰매장 개장

인천 계양구가 유아·청소년에게 겨울철 야외 여가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시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을 조성했다.

구는 지난 18일 서운동 106-1번지 일원 계양꽃마루 내 수도권 최대 규모(가로 50m×세로 40m)의 인위적 결빙이 아닌 자연적 결빙을 이용한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곡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곡성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보조 금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차량 중량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t미만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신차 구입없이 폐차만 했을 경우에는 70%를 받게 된다. 반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상한액 내에서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상주시 정보화마을, 곶감 10% 할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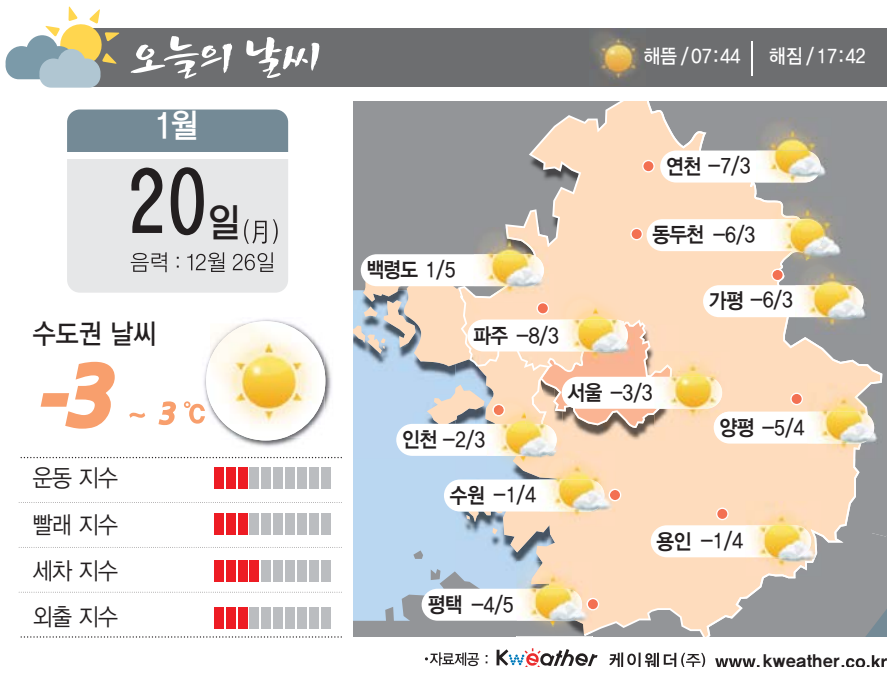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2020년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명품 곶감 10% 할인 판매를 한다.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상주시 은자골·모동반계포도·구마이곶감 정보화마을에서 동시에 열린다.

주요품목은 곶감(반건시, 건시), 감말랭이, 포도즙, 사과 등이다.

상주 정보화마을 곶감은 기온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맛과 품질도 뛰어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경북=김홍기 기자



광주시-서진건설, 48억 당좌수표 두고 소유권 공방

"담보금 성격" vs "소송 불사"

〈광주 도시공사〉 〈서진건설〉

협상결렬 책임 소재 중요쟁점
명확한 판단 어렵다면 조정 시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 결렬로 생긴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48억원 쟁탈전'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행 담보금의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툼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질 조짐을 보인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사유를 은행측에 질의했다.

수표 금액을 은행에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당한 도시공사가 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좌수표는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려고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협상 결렬 후 소유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담보금이 자연스럽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진건설은 해당 액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은행에서는 확정판결 등 소유권을 명확하게 판단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어느 쪽에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물론 서진건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져 결국 48억원의 향방은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조정이 시도될 수도 있다.

상호 책임 인정을 전제로 액수를 분할하는 제안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 지분을 놓고 다툰다면 결국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인끼리 거래가 아닌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수표를 귀속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소송밖에 없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만원으로 경북의 맛과 멋 즐기세요"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사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이벤트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버스타고 대구경북 여행' 이벤트를 18일부터 시작했다.

만원으로 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구석구석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당일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주 2회(토, 일요일) 서울 강남역, 수원역, 부산 서면역에서 버스가 출발한다.

다음달 29일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11개의 여행코스에 대해 전화 예약 신청을 받는다.

도는 3월부터 웹사이트를 구축해 인터넷 예약과 일정별 코스안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첫 날인 18일 아침 서울에서는 6대의 만원버스가 안동으로 출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만원으로 떠나는 대구경북여행' 버스에 승차해 승객들과 포즈를 취했다. /뉴시스

이 날 코스는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둘러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로 이뤄졌다.

19일에는 가야문화와 딸기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령 투어로 진행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서울 강남역을 찾아 이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 지사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의 80여개 축제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대구경북의 우수한 문화유산, 먹거리, 맛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경북도, 벼 농가에 ha당 30만원 '특별' 지원

변동직불금 147억 농가 지급
기존 직불제 형평성 등 지적

경북도가 오는 20~22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147억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을 쌀 80kg당 2544원(ha당 17만448원)으로 고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에서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에 11만3583 농가로 면적은 8만6504ha다.

상주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으로 많으며, 영양군이 가장 적다.

쌀 변동직불제도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이다.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쌀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2005년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부터 공익지불제로 개편된다.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도'특별지원'+산지 쌀가격)은 21만539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100.7%다.

경북도는 정부의 직불금과는 별개로 벼 재배농가에 ha당 3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동안의 직불제는 쌀 농업 위주 지원에 따른 품목 간 형평성 부족, 면적기준 방식의 지원으로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부의 2020년 공익직불제의 시행준비에 맞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홍기 기자

장성군

신중년 일자리 사업 모집

장성군이 신중년(만 50세 ~ 70세 미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에는 문화예술분야(사진 촬영, 관광 안내), 교육연구분야(초·중 고등학생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IT정보분야(동영상·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행정지원, 사회서비스) 등 총 13개 분야와 관련된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 인력을 고용하게 되며,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장 부담분,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전남=김태수 기자